

24학년도 9평 생활과 윤리 Zola 분석(간략본)

주의: Zola의 자료 표절하지 마셈!

<차례>

- Part I. 간단 개요
- Part II. 문제 Zola 풀이 - 3쪽
- 기타 참고 자료

Part I 개요

1. 간단 결론: 아래 2개 작업으로 47점이 확보된다!

(1) 바나나 제거 '제대로'

예) 13번(사회계약론) 보기 ㄷ 판단

(2) 기출 분석 '제대로'

예1) 9번(형벌) 보기 ㄱ

예2) 10번 <보기> 전부

예3) 15번(분배정의) 보기 ㄴ, ㄷ

2. 9평 보고 느낀 점은

수능이 이렇게 나오면 3~4등급도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것임.

출제경향과 원칙이 딱 눈에 보이기 때문임.

(수능 시험이 천재를 가려내는 시험이 아닌 이상 단기간 공부 성과는 출제 방식이 중요하지 출제 난이도는 중요치 않습니다.)



니다. 다시 했을때 하나하나 따져가며 보니까 다 배운 내용인것을 보고 헛공부한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필기 백지복습하고 선 지랑 제시문들 하나하나 듣는 연습 말고는 이제 방법 없겠쇼?



ebs정리 듣고 시험을 쳤고 2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그 후, 쌤 커리를 따라가려 했지만, 강의를 듣는 도중에도 o원가 나한테 이대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4간 전

이대론 안되겠다 싶어서 찾다 찾다 선생님 강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쌤을 듣고 친 9평결과는 2등급이 나왔지만 하나는 동양윤리 문제를 잘못 파악했고 또 다른 문제에서는 바나나 선지에 넘어간 거여서ㅋㅋ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평을 치고 난뒤 생운 공부는 쌤님 방식대로 해야함을 깨달았습니다.

수능 '만' 잘 보면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제 강의가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3. 난이도

[참고] 역대 생운 1컷 변화

	6월	9월	11월 대수능
14학년도(첫 시행)	45	47	47
15학년도	43	47	45
16학년도	47	41	50
17학년도	44	43	47
18학년도	45	47	50
19학년도	45	50	50
20학년도	47	48	48
21학년도	47	48	50
22학년도	45	50	48
23학년도	47	47	45
24학년도	43	42~44??	???

4. 정답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④	06. ①	07. ①	08. ③	09. ③	10. ③
11. ④	12. ⑤	13. ①	14. ⑤	15. ⑤	16. ⑤	17. ③	18. ①	19. ②	20. ①

Part II 문제 Zola 풀이

→지금부터의 풀이는 정답 도출 중심의 간략 풀이입니다.

※ 문제 출처 보는 법

15-6-3 : 15학년도(14년 시행) 6평 3번

23 ebs 수특: 23년 발간(24학년도) ebs 수능 특강

1. 풀이 생략. 이 문제에 대한 풀이가 필요하다면 님은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이 시간 낭비임.

2. 지식 문제임. 2번 문제도 지식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야 함. 그 정도로 기본 중의 기본 지식임. 단 칸트는 언제나 조심해야 함!!! 공부 윤사급으로 준비해서 수능 볼 것.

3. 동양 죽음관

갑-도가(장자), 을-유가(맹자)

갑 많은 분들이 제시문 point를 모름. 당연 이걸 동양 사상 공부 약해서 그러함.

갑: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때[時]를 만났기 때문이고
어찌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리[順]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른다면 슬픔이나 기쁨이 들어올 틈이 없다.

마지막 문장에서 도가의 '무위자연'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님은 무위자연의 '의미'를 모르든가 제시문 이해력이 부족한 것임. 이해력이 부족한 분들 중에 독학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비추함!

■ 23 ebs 수특 34쪽 자료

자료 플러스 죽음에 대한 장자의 관점

사람이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며, 세상을 떠난 것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정해 준 때를 마음 편히 여기고 운명에 순응하면 슬픔과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게 된다. - "장자" -

장자는 죽음을 자연의 순환 과정 중 하나로 보았으며, 그러한 자연의 본성에 순응하고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을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수강생들은) 자료 교재 53쪽 위 확인! 분명 point를 물어봤음.

3)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며, 이 세상을 떠난 것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자연)이 정해 준 때를 마음 편히 여기고 운명에 순응하면 슬픔과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지를 옛 사람들은 '하늘의 매듭에서 풀려나는 것[현해(懸解), 속박에서 벗어남]'이라 했다.
☞ Zola Guide 제시문에서 도가임을 알 수 있는 point는?

◆ 유가와 도가의 제시문 유형 비교(*자세한 설명은 강사 직강 확인)

유가	도가(anti 유가)
삶-기쁨	패턴 1. 삶-죽음 분별X
죽음-슬픔(애도)	패턴 2. 삶-기쁨X, 죽음-슬픔X
	패턴 3. 삶-수고, 죽음-쉽(휴식)

4. 틀리신 님들은 아래의 국어 쌤께 상담받으셈!!!

국어					
					
이해황 기술분석의 추월차선	심찬우 수능 국어의 본질적 접근	김민재(피렘) 어려워진 수능, 일관된 생각의 힘 / 김민재, 그리고 피렘	이성권 (수능) 문학 상위권 핵심 강의 ____ 문학 출제의 논리를 꿰뚫는 필수코스	김강민 수능 국어, 오늘부터 강만-하다	윤응식 Y.E.S국어! 실전 사고와 판단! 기술과 실전의 적절한 조화!

<https://class.orbi.kr/teacher>

5. 예전에 자주 나오던 문제였는데, 한동안 안 나왔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출 5개년 정도 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 않을까???? 최대한 역순으로 많이 풀어 보시길 권장. 빨더팅 사서 풀어보셈! 저는 현강생에게는 생운 14학년도부터 모두 다 프린트해서 나눠줍니다.
 자료 교재에 이거 연습시키는 문제 실어 두었는데, 하는 방법 간략하게 인강으로 촬영할까 함.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거 못하는 분들이 50%는 될 것 같음. 오르비언은 90% 이상 공부 안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메가 예상 정답률은 60%네요.

zola 연습

출처: 교과서, 평가원, 참고서, 논술 문제

※ 빈 칸을 완성하시오.

96)1. 결론이 제시된 경우 1

도덕 원리(대전제) :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사실 판단(소전제) : _____

도덕 판단(결론) : 내가 나의 몸을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97)2. 결론이 제시된 경우 2

도덕 원리(대전제) : _____

사실 판단(소전제) : 임신 중절은 여성의 선택 사항이다.

도덕 판단(결론) : 임신 중절은 존중되어야 한다.

98)3. 결론이 없는 경우

도덕 원리(대전제) :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사실 판단(소전제) : 온실 가스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도덕 판단(결론) : _____

6. 사상이 지식이 아니라 가치 중립/가치 개입 개념으로 독해하고 선지 이해하면 되는 문제임.

나름 정답률이 잘 나와서 칭찬해 드리고 싶음! GOOOOOD~~

③ 오답률이 높는데 이 문장은 바나나 문장임. 문장 의미 상 성립하기 어려움.

7. 여러분이 틀려도 되는(?) 유일한 문제임. => 이거 틀리면 47점 1등급임.

기출 그 어디에서도 없는 처음 보는 선지가 '정답'임.

선지 ①

ebs 연계를 엄청 강하게 한 문제임. 6평 베카리아도 ebs 연계였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음.

23 ebs 수능 완성 뒤에 있는 모의고사 5회 20번의 해설에 나오는 내용임.

⑤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다수의 집단이 동시에 시민 불복종을 시행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극심한 무질서가 초래되어 체제를 파멸로 이끌 위험이 있으므로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싱어는 특정한 법에 불복종하기 전에 효용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불복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Zola의 자료 교재에도 나옴. 나름 자료 교재 예측력 썬스ㅈㅈ임.

■ 자료 교재 1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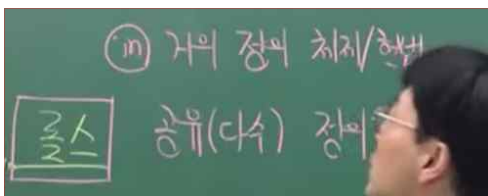
(8) 그런데 시민 불복종을 하기 위한 똑같이 타당한 사정을 가진 많은 집단들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따르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체제를 파멸로 이끌지 않기 위해, 이로써 모든 이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 우리가 시민 불복종에 의해 자신의 입장을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 제3의 당사자, 이른바 무고한 사람을 침해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 ... 우리는 우리들의 권리 내에서 행위하고 있으나 만일 우리의 행위가 다수자의 거센

선지 ②는 아래 분 추천함.

17 패킹 · 1032294 · 19시간 전 · MS 2021
완전 정의로운 사회도 있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해서 2번 거름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참고로 저는 강의에서 말로 설명했음요...ㅈㅈ 씨줄겅...ㅈㅈ

28강 국가와 시민의 윤리 (3) 약 39분~40분 경에 롤스의 '거의' 정의로운 체제에 대한 설명하면서 '완벽'한 정의면 시불할 일이 없지 않겠나라고 설명했음요. 확인해 보셈.



8. 바나나 문제임. 넘어갈게.

9. 이거 틀리신 분은 자기 반성 강하게 하셔야 함.

갑, 을 사상가가 누군지 모르면 이거 보시 마시고 개념 공부 하시면 됨요.

갑: 베카리아, 을: 칸트

보기와 선지 조합을 봅시다.

<보 기>

ㄱ. 갑: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ㄴ. 갑: 종신 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ㄷ. 을: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ㄹ. 갑과 을: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여기서 남들은 'ㄱ'을 가장 먼저 날리면 됨. 그래서 답은 ③, ⑤에서 결정됨.

아래는 메가스터디 정오답률. 70%는 지금부터 자기 반성 준비해 보셈.

23%	12%	20%	40%	6%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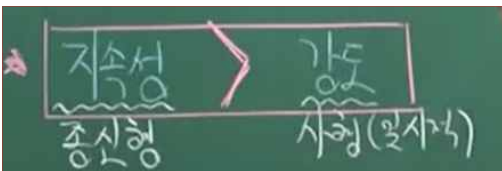
(1) 개념 확인!

베카리아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맞나요?

① [강도X, 지속성O]

② [강도<지속성]

저는 ②로 분명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듣보잡 강사인 저'만' 이럴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출에서 이미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기출을 봅시다! 무려 최근 3년 중에 2번이나 출제가 되었음요.

(2) 기출 확인!!

◆ 22-6-19

◆ 23-수능-19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법은 사회적 결핍의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법에 복종하는 시민들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 법은 일반 의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p> <p>을: 법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p> <p>병: 법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은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을 규정해야 한다.</p>
(나)	

- ① A, F: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 ③ C: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임을 간과한다.
- ④ D: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 ⑤ E: 사형제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법은 각자의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으로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생명의 포기는 그 최소한의 몫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p> <p>을: 법은 일반 의지의 행위에 속하고,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결합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살인범은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한 사회 계약을 파기한 자이다.</p> <p>병: 입법권은 국민의 합일된 의지에만 귀속한다. 보편적으로 합일된 의지만이 법칙 수립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p>
(나)	

- ① A, F: 사형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없는 비효과적 형벌임을 간과한다.
- ② B: 동등한 공포 여부가 사형제 존엄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살인범은 더 이상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D: 모든 형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E: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지 않음을 간과한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물을게?

너 지금까지 뭐했냐??

계속 작업을 해 봅시다. 선지 다시 확인.

그를 날렸으니 선지 조합상 ㄷ만 판단하면 답은 나옴.

— <보 기> —

ㄱ. 갑: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ㄴ. 갑: 종신 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ㄷ. 을: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ㄹ. 갑과 을: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ㄷ에 대한 판단은 아래 글 참고하면 됨.

생윤 필요악 선지 틀린 거 맞는듯요 zola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310015>



20/10/24
18:45

Zola [758219] (수정됨)

공리주의와 달리 칸트에게는 나쁘다와 악[그름]하다는 구분
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칸트에게 형벌은 범죄자에게 나쁜 것
이기는 하지만 도덕적으로 악하다고[그르다고] 할 수는 없습
니다.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검색해보니까

몇년전에 zola님이 쓰신게 있네요.. ㅏ

ㄷ 선지는 칸트의 의무론 개념 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니 주의할 것!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내셨나요???? 진짜 검색 능력 대단하심....

수강생들은 자료 교재의 2군데에 내용 확인 가능함.

- 자료 교재 113쪽 확인하면 설명 글 나옴.
- 칸트 원전은 아래 글 참고. 자료 교재 111쪽임.

4. 칸트

Zola Guide 칸트의 핵심 명제는 '형벌은 정언명령'
다른 부분이 분명 있음. 전체적으로 응보론(의무론) 개념.

응보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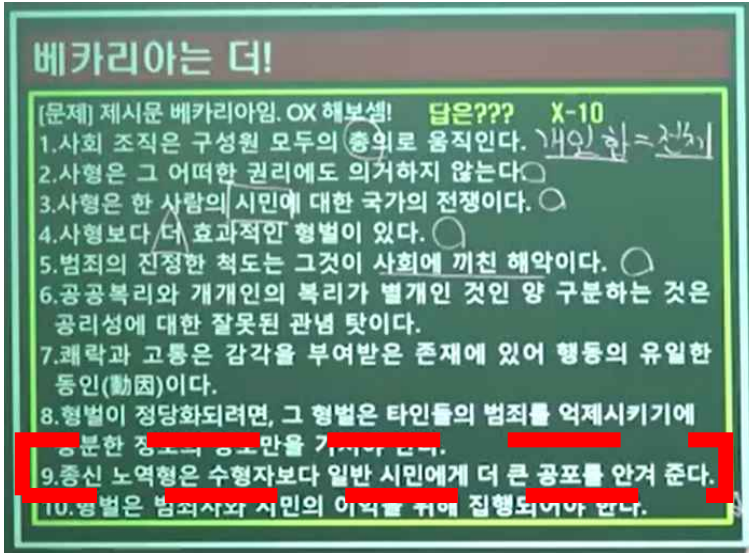
1.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마침내 그러한 행위에 상응하는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은 분명 나쁜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에 찬성하고, 비록 거기서 유익한 것이 생겨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옳은 것으로 여긴다.

ㄴ은 분명 Zola가 여기 저기 연습시켰음.

자료 교재(108쪽), 개념 강의(25강), 특강 자료들에서 연습시켰음.

아래는 [Zola 생윤 1-개념의 모든 것]의 25강 67분 경 화면임.

중요한 것은 분명 Zola는 베카리아는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고 수업을 한다는 것이다. 믿고 따라오되, 시키는 것은 실천해주셈~~



10. 환경(자연) 윤리 ‘개념’ 연습하기 좋은 문제임. 사상가의 개별 지식은 필요없음.

갑-생명중심주의(테일러), 을-생태중심주의(레오폴드), 병-싱어(감정 중심주의: 수강생들은 동물 중심주의로 외우지 마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병 사상가 틀리신 분은 아래 글 확인!

생윤 10번 병 사상가는 '싱어'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30352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303520>

하나 더. 벤다이어그램 나오면 그림을 보지 말고 옆의 범례를 보고 풀길 바람. 그림 보면 헷갈리는 경우 많음!!

〈범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보기〉

ㄱ. A: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ㄴ. B: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ㄷ. C: 인간은 본질적으로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
 ㄹ. D: 자연 자체의 선은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ㄱ이 함정 선지임. ㄱ을 제끼면 ③, ⑤가 남음.

5%	13%	43%	11%	29%
----	-----	-----	-----	-----

그런데!!!!

ㄱ은 뭐가 문제일까? 아래 기출 확인!

■ 22-수능-14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유기체는 외적 활동뿐 아니라 내적 기능도 모두 목표 지향적이고, 생물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속적인 경향을 지닌다.</p> <p>을: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동물에 대한 잔인한 폭력은 삼가야 하며,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동물을 부려야 한다.</p> <p>병: 삶의 주체는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보 기>

ㄱ. A: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ㄴ. B: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ㄷ. C: 왜고 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다.

ㄹ. D: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ㄱ 선지를 그때도 많이 틀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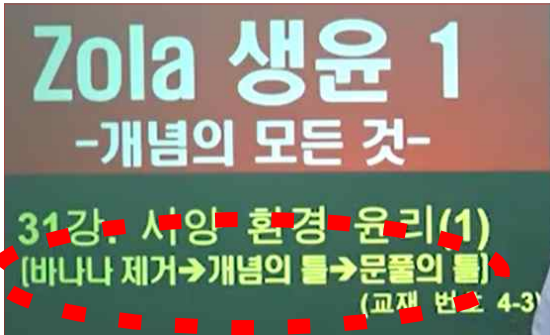
12%	9%	11%	19%	49%
-----	----	-----	-----	-----

생윤 말장난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반성해 보셈. 말장난이라고 하는 문장들 중에서 님이 외우고 있는 문장이 있나요? 사실 시험지들의 말장난은 버리고, 적어도 기출로 출제된 님들이 생각하는 평가원의 말장난은 외우세요. 그래서 적어도 비슷하게 반복되는 선지들은 보면 딱 이거 기출 활용했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수능장에서 안 틀립니다.

하나 더! 외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런데도 틀렸으면 실망하지 말고 계속하면 됨. 이런 것은 한 번에 딱 해결 안 됨.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처럼 ‘지식’을 알고, 그것을 문제에 맞게 반복적으로 적용·연습하는 실천을 해야 함요. 님들은 핫팅~~~~

그을 제끼면 ‘ㄴ’만 판단하면 됨. 이 선지는 개체론, 전일론 개념으로 극복은 가능함. 그런데 ‘ㄴ’ 선지를 보고 개

체론, 전일론 개념을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음. 왜일까? 개념 공부를 안하고 사상가만 열심히 하기 때문임. 정신 차리실 것. 저는 환경 윤리 부분은 아래의 순서대로 중요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풀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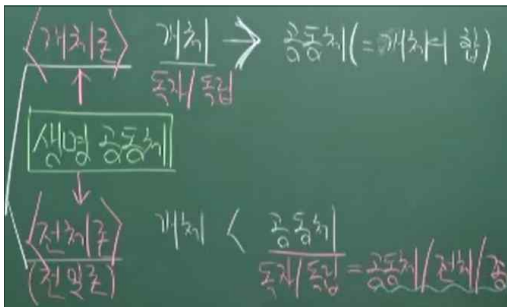


아래의 개체론, 전체론(전일론) 개념을 이용해서

- 개체론: 개체>전체
- 전일론: 전체>개체

이 정도로 해서 L 선지에서 탈출하면 됨. 그러면 답 나옴.

(단, 솔직히 Zola는 이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함. 평가원의 의도가 뭘까라는 생각때문에 풀면서 고민을 좀 했음)



1. 무료 강의의 바나나 제거 특강을 모르면 꼭 들을 것.

[무료] Zola 생운 0 - 바나나 제거 특강 [완강](#)
#2024 생운 zola

2. 개념 강의 수강생들은 '바나나'가 되어 있는 주제들은 반드시 듣고 정리할 것!

2024 Zola 생운 1 - 개념의 모든 것 [완강](#)
#2024 생운 zola

하루 전
바나나 정리해주신 것만으로 진짜 대부분 풀리네요...;; 옛날엔 뭘 그리 암기하고 정리했는지 참..

11. 이번 9평의 특징이 동양 사상이 많이 나왔다는 것임. 틀렸어도 실망하지 말고 공부 조금 만 더 하면 이건 수능장 가면 정답률 90% 나옴. 힘내셈!!!

갑 제시문의 상선약수의 하위 개념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그것을 통치론(이상사회)와 연결시켜야 함. 아니면 엄청난 오개념이 생길 수 있음. 무슨 말인지 모르지? 현강에서 설명해줄거야!!(인강에서도 주의할 점을 강의할 때 언급했듯이 인강 잘 따라왔으면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됨. 수능에서 출제되어도 절대 안 틀림!!)

12. 정답률 보니 잘 푸신 듯 합니다.

13. ㄷ 선지 틀리신 분들은 바나나 제거 강의 꼭 들으셈!



[Redacted]

9번에 ㄷ선지 13번 ㄷ선지 이 두개가 가장 골치아팠어요.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Zola · 758219 · 19시간 전 · MS 2017

참고로...생윤 9 ㄷ은 의무론 이용하면 됩니다. 의무론자인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옳다고 봅니다. 즉 의무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고통 여부에 두지 않는다는 개념 이용하면 간단히 풀립니다.

13 ㄷ은 제시문 첫 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독해해 보세요. 제시문 첫 문장과 ㄷ의 일치/불일치 이용하면 됨요.

열공+즐공=대박!!

좋아요 1 · 답글 달기 · 신고 · 수정 · 삭제



[Redacted]

우와우 그러네요 그냥 무작정 로크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제시문 꼼꼼히 읽었습니다 감사해여!!!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Zola · 758219 · 19시간 전 · MS 2017

바나나 제거 특강에 독해법 원리와 연습 있으니 꼭 들으셈. 무료 강의임요.

좋아요 1 · 답글 달기 · 신고 · 수정 · 삭제

님들이 표시한 부분 중심으로 직접 국어 풀이 해보세요!!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람들은 자연법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행동,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는 그들을 공동된 법률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보 기>

- ㄱ.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 ㄴ.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 ㄷ. 자연 상태에서 분쟁은 공동된 자연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실제로 이렇게 푸신 분이 제 수강생 중에 있네요. 제 얘기대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과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현장에서 저 문제를 풀 때 “자연법을 집행”하는데 분쟁이 있다고 했으니 어쨌든 공동된 자연법이 있어야지 집행에 관해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았는데 이 접근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을 하려면 어쨌든 법이 존재를 해야하니까요

다음으로 ㄱ 선지에 대한 판단은 아래 댓글로 대신하겠음요.

생윤 13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319008>

ㄱ 선지요

국가에 시민의 권리를 양도하는게 사회계약설 아닌가요? 양도 안하면 권리 보장될수 없는거 맞지 않나요??

위 질문에 아래 같은 답글도 있구요(어쩌면 현실적인 접근법일 듯요^^ 잘 했음요!!!)



올해로 · 1040117 · 17시간 전 · MS 2021

저는 현장에서 저항권 생각하고 x했는데 맞는 풀이인지는 모르겠네요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Zola · 758219 · 16시간 전 · MS 2017 (수정됨)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생명권은 보장받지 못하나요??? 자연상태에서 누리던 권리를 더 잘 보호받기 위해 국가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양도의 의미는 양도한 것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라는 것이지 그 권리 외에는 보호하지 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크가 처벌권을 양도함으로써 국가는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처벌권의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다른 여타의 권리들을 잘 보호하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아요 1 · 답글 달기 · 신고 · 수정 · 삭제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지만 국가가 시민의 소유권을 보장해야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가요?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Zola · 758219 · 16시간 전 · MS 2017

그렇죠. GOOOOOD~~~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 수정 · 삭제



(수정됨)

아 이해했어요 자연권을 양도한거지 모든 자연권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게 아니여서 양도하지 않은 권리도 보장될수 있는거죠?? 시민의 권리라 하길래 계약을 통해 형성된 시민권만 한정하는건줄 알았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당!!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무료] zola 생운 0-바나나 제거 특강

<https://class.orbi.kr/course/2050>

14. 넘어가도 될 듯. <보기> ㄱ, ㄴ, ㄷ, ㄹ 모두 바나나 선지임. 이걸 정리할 선지들이 아님. 바나나로 해결하면 됨.

15. 우선 ㄷ 판단 틀리신 분들은 자기 반성을 강하게 하시길 권면함!!! 특히 ㄷ보고 공산주의, 마르크스, 북한 생각 하신 분들!!!!

<보 기>

ㄱ. A: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가능한가?
 ㄴ. B: 차등의 원칙은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할 수 있는가?
 ㄷ. B: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가?
 ㄹ. C: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런 분이 있었네요!

제가 9평 하루전에 저거 수능 문제 풀었는데, 15번 ㄷ선지 보자마자 수능문제 그 선지가 생각 나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 진짜 운이 좋았어요..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Zola · 758219 · 18시간 전 · MS 2017



근데 롤스 이론으로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롤스는 연습하세요~~
 VERY GOOOOOOOOOD

좋아요 1 · 답글 달기 · 신고 · 수정 · 삭제

23-수능-9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기본적 자유의 체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분배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을: 분배 정의에 있어서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이다.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의 과거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낳는다.

<보 기>

ㄱ. 갑: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ㄴ. 갑: 기본적 자유들이 상충하더라도 그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ㄷ. 을: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는 성립할 수 있다.
 ㄹ. 갑과 을: 능력에 따른 분배는 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자료 교재 89쪽

(10) 모든 사회적 가치들-자유, 기회, 소득, 재산 및 자존감의 기반-은 이들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수강생님들아, 롤스는 글이 어려움. 보고 또 보고 또또 봐야 함. 그래서 롤스가 아니라 롤스별임!!!

참고로 L 선지도 묻는데 L은 선지는 아래 기출 확인요!!

■ 23-9-15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정의 이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정하는 방식을 다룬다.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주요 제도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p> <p>을: 분배 정의에 관한 정형적 원리는 재분배 행위를 반드시 불러온다.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재분배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소유권을 지켜 줄 최소 국가는 우리를 불가침의 개인들로 취급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div> </div>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이네요" --> C{C} A -- "예" --> B{B} B -- "예" --> J1[갑의 입장] C -- "예" --> J2[을의 입장] </pre>

<보 기>

㉠. A: 공정한 분배를 위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 B: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도록 장려되는 경우가 있는가?

㉢. B: 정의 원칙 수립 과정에서 간헐적이며 비구속적인가?

㉣. C: 과거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 소유권을 창출하는 요인인가?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아래는 당시 분석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확인하셈.

㉡. B: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도록 장려되는 경우가 있는가?

⇒ 롤스O. 우선 아래 인터넷 블로그 자료 확인!

공정한 출발 - Daum 블로그

<https://blog.daum.net/tjdn9013/2513>

사회가 재능 있는 사람이 재능을 발휘하도록 허락하고 장려하되 그 재능으로 거둔 결실을 가져가는데 어떤 자격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운 좋게 뛰어난 유전자에 당첨된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기존의 능력주의 원칙에 가장 소외된 계층을 돕는다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은 일 년에 3100만 달러를 벌 수 있지만 세금으로 일부를 내 천부적 농구 기술이 없는 사람들 돕는다는 전제를 붙이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 게이츠도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이 돈이 응당 자기 몫이라고 할 순 없죠.

⇒ 위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것은 차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롤스의 '정의론'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참고로 중요한(기본) 부분이므로 당연히 강의 자료 교재에도 나온다.

큰 자료 교재 95쪽 바로 직빵 나눔.

■ 자료 교재

(9) 최소 국가는 계약 이행을 강제하며, 자해 행위, 절도를 강제로 금지한다.

16. 엘리아데인데 잘 하셨는데, 그래도 애는 공부 조금은 해 두셔야 합니다. 조심하시길....수능에서는 정답률 60%까지 떨어지는 사상가임요.

17. 예술관이면서 동양 사상임. 공부가 필요함. 근데 조금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음. 맞추신 분은 자만하지 말고 동양 사상가들 다시 한 번 보시고, 틀리신 분은 유도불 중심으로 정리하되 묵가와 법가도 꼭 추가해서 정리해 두시길. 참고로 법가는 예술관이 아니라 국가관에 나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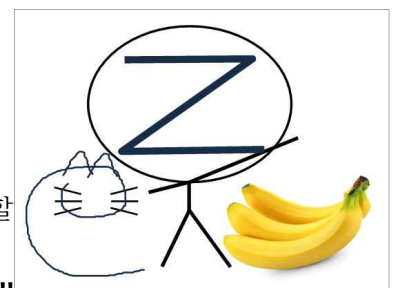
18. 해외 원조인데 쉽게 나왔음.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음요.

19. 원효의 일심과 화쟁임. 처음 나온 사상가임. 그래도 어렵지 않음. 일심과 화쟁의 의미 알고 있으면 됨. 이 문제는 100% 독해형임.

20. 100% 독해형임.

이상임. 고생 많았음.

이번에 들은 쓴소리들을 다음에 듣지 않게 되었을 때 님들의 생운 입시는 성공할 것임!!



열공 + 즐공 = 대박!!!

[참고] 메가스터디 정답률

번호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1	2	3	4	5
1	4	93%	2%	2%	1%	93%	1%
2	4	89%	1%	6%	4%	89%	1%
3	2	76%	1%	76%	5%	4%	14%
4	5	83%	5%	10%	2%	1%	83%
5	4	60%	2%	2%	1%	60%	35%
6	1	82%	82%	5%	10%	2%	1%
7	1	38%	38%	45%	3%	7%	7%
8	3	90%	4%	3%	90%	1%	2%
9	3	20%	23%	12%	20%	40%	6%
10	3	43%	5%	13%	43%	11%	29%
11	4	67%	2%	22%	3%	67%	5%
12	5	86%	8%	1%	3%	1%	86%
13	1	45%	45%	10%	22%	13%	11%
14	5	89%	1%	1%	2%	7%	89%
15	5	26%	18%	26%	21%	10%	26%
16	5	91%	1%	4%	1%	3%	91%
17	3	89%	3%	2%	89%	5%	1%
18	1	78%	78%	5%	4%	4%	9%
19	2	96%	1%	96%	1%	1%	1%
20	1	91%	91%	1%	5%	1%	1%

[참고] ebsi 오답률 15

순위	문항 번호	오답률	정답	선택지별 비율				
				①	②	③	④	⑤
1	9	91	3	19	22	9	43	7
2	15	85	5	18	37	17	13	15
3	13	72	1	28	12	22	21	16
4	7	68	1	32	40	7	13	9
5	10	64	3	6	20	36	15	23
6	5	55	4	3	4	2	45	46
7	11	44	4	3	22	8	56	11
8	18	42	1	58	8	7	7	20
9	3	34	2	1	66	5	5	23
10	6	31	1	69	8	18	3	2
11	4	31	5	7	19	4	1	69
12	2	25	4	2	13	9	75	1
13	12	24	5	12	3	7	3	76
14	14	22	5	1	3	4	14	78
15	16	20	5	2	8	3	6	80

9평 후 생운 확인 딱 하나!!!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 3번째로 응시한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2년만에 보는 수능인지라 모든 과목이 오랜만이었고, 올해 3월에 군입대를 해서 사탐에 투자할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간 대비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김준호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생운은 7월부터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의 바나나 제거특강부터 즐시모까지 모두 수강하면서 생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선지가 나와도 제시문 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시문에 찾을 수 없다면 체계적으로 정리한 필기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만점 받기 쉽겠다란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생각은 수능 시험장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풀면서 '이건 제시문 바나나다.', '이건 필기본에 있는 지식으로 보면, 틀렸네.' 등등 선지 판단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10분 정도 남기고, 여유롭게 가채점표까지 작성했습니다. 정말 이번 시험에서 여유롭게 봤던 유일한 과목이었습니다..ㅠ

현역때는 메가스터디 3명의 윤리 강사분들을 전전하며 방황했고, 성적도 1~2로 진동했었는데 즐라쌤 덕분에 고정1이 되었습니다. 생운을 선택할 후배님들도 즐라쌤을 강추합니다~!!!

개알 홍보 : Zola 추천

1. 자료 교재

Zola 생운 자료 교재 및 문제 교재를 책 소개!

<https://class.orbi.kr/teacher/164/notice/85156>

약 30쪽 분량의 1단원 샘플 공개되어 있음.

2. 인강

■ [무료] Zola 생운 O - 바나나 제거 특강

<https://class.orbi.kr/course/2050>

■ [무료] Zola 생운 공부법 - 망하는 생운 vs. 성공하는 생운

<https://class.orbi.kr/course/2311>

■ [유료] Zola 생운 1 - 개념의 모든 것

<https://class.orbi.kr/course/2404>

⇐ 진짜 개념에 대해 할 얘기들은 다 했음. 강의 수와 매 강의 시간을 직접 확인해 보셈. Zola는 심심해서 저렇게 강의했겠냐? 생운 내용 생각보다 많음!!!

⇐ 가격이 33,000원에 교재 2권(자료 교재, 문제 교재) 무료 pdf 제공됨. 게다가 수강기간이 수능 전까지임. 진짜 가성비 최고임! 다른 쌤 강의 듣더라도 '보강용' 강의로도 충분히 가성비 좋음. 추천함! 게다가 강의력 어디 가서 안 꿀림!

⇐ 지금부터 봐도 안 늦음. 기본 개념만 탄탄하면 알겠지만 1등급 나옴. 다 안 봐도 되고 킬러만 뽑아서 봐도 본전 이상의 값어치를 함!!

■ Zola 생운 2 - 선지의 모든 것

<https://class.orbi.kr/course/2468>

⇐ 11강 짜리임. 집중해서 들으면 3일 정도면 충분히 들음. 개인적으로 막판 정리용으로 추천하는 강의임.

3. 현강

(1) 정규강의

■ 서울 대치동: 오르비 학원(대치동, 02-522-0207) : 토요일 9시 30분~12시 30분

■ 서울 대치동: 에듀퍼스트 학원(대치동, 02-501-5825) : 토요일 7시~10시

■ 서울 목동: 예섬학원(목동관, 02-6212-8822) : 화요일 6시 30분~10시(3시간 30분 집중 연습)

■ 경기 동탄/수원/화성: 메이드학원(동탄점, 031-613-8973) 일요일 3시~6시(거의 마감), 7시~10시(개강 예정)

(2) 추석 특강

■ 목동 종로(02-2649-1881): 9월 28일, 8시간 하루 몰입 특강

■ 대치 종로((02-541-1881): 9월 30일, 8시간 하루 몰입 특강

자세한 것은 해당 학원 홈페이지를 참고. 추후에 수업 안내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Coming Soon-----

졸라시(Zola Cival)의 정신

어떤 주제는 매년 나옵니다.
어떤 주제는 2~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어떤 주제는 5~10년에 한 번 나옵니다.
어떤 주제는 생운 역사상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주제이든 어렵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수능의 킬러 문제이면 어찌시겠습니까?

이 모의고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킬러 난이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제도 있지만 모두 킬러 난이도입니다.

오로지 킬러이기 위해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엽은 없습니다.

철저히 교과서+기출+ebs에 한정되어 나온 핵심들일 뿐입니다.

모의고사에 대한 평가(오르비 · 수만휘 글들 모음)

- (1) 똥-기출-교과서 풀반영이구요. 표현들이 윤리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국어적으로 굉장히 깔끔했어요. 강추함.
- (2) 진짜 졸시모 수능형 1회 풀었는데...감히 현존하는 생운 모고 중 1등이라고 생각해요..그 어느 모고보다 해설이 자세함...
- (3) zola 모의 수능형 문제들도 쉬운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수능형1회 풀어봤는데 난도나 포인트면에서 ㅅㅅㅅㅅㅅ였음 ... 1~5번 푸는데 기출에서 봤던 내용들이 진짜 이쁘고 뷰티하고 인테그리티하고 스테이빌리티하게 변형돼있길래 "카- 사쓰가 이름값하는 정통이네-" 하고 푸는데 9번쯤인가에서 뚝배기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 해설지봤더니 (굉장히 상세함) ... 제가 틀리거나 헛갈린 부분이 전부 교과서나 기출기반임
- (5) 난이도는 평가원 이상입니다. 한 큐에 바로 딱딱 풀리는게 아닌 ... 제 뚝배기를 부수기에 충분했고, 기고만장하신 우리 생운 고정1 or 50분들은 이 기회에 한 번 문제를 푸시면서 자기 상태를 점검&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6) 단언컨대 생운계에 존재하는 초고난도 모의고사입니다. 그렇다고 난해한 선지나 극지엽 선지가 있는 건 아닌데 답지를 보면 생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본인이 생운 좀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 모의를 풀고 각성하시길 바라구요..

-----Coming Soon-----